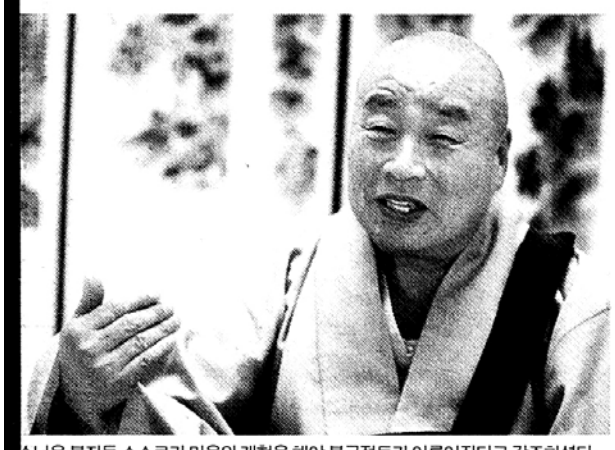
아야 영원한 참생명

큰스님

혜정스님(71세)이 18년간 머물며 중창을 해온 문수사에는 한국불교 중흥조인 태고 보우국사가 자연석굴인 문수법당에서 수행하다 문수동자가 건네준 감로수를 마시고 홀연히 깨달음을 얻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문수사 주지)



스님은 불자들 스스로가 마음의 개혁을 해야 불국정토가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셨다.

진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같이 삭막한 시대에는 보시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지폐도 쌓아두면 신문지 모아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계바라밀은 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스승으로 삼으로고 한 계는 불교인이면 지켜야할 윤리입니다. 인욕바라밀은 참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통이 와도 그 고통을 달게 받으며 인욕하는 것입니다. 죽을 고통이 찾아와도 참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인욕수행과 더불어 한 평생을 게으름 없이 정진해야 합니다. 정진 없이는 아무것도 이뤄지는 것이 없습니다. 부처의 마음을 깨우치면 천지우주간 부러움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참선을 하면 모든 악업에서 해탈되고 대자유를 얻을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음을 항상 고요히 하여 정진 또 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깁니다. 지혜와 복을 갖추면 그 사람은 저절로 큰일을 하게 됩니다."

스님은 개인이 자기 이기적인 것만 내세우고, 정치인들이 당리당략 자기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에 만나면 싸우는 것이라며 육바라밀 정신이 불자뿐 아니라 사회에 확산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스님은 이번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오른 것은 기술과 기능이 향상돼서가 아니라 국민의 염원이 하나로 집중돼 발현된 결과라고 말씀했다. "염원이 집중되면 안되는 일이 없다"는 스님은 월드컵을 계기로 문화선진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합당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위대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를 위해 3가지 덕목을 설하셨다.

"먼저 각자가 중생심을 개혁해야 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자기 잘못된 생활패턴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참회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발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청정해져 국가까지도 청정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양심에 걸림 없는 행위를 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면 안됩니다. 모든 사람이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자세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불국정토는 저절로 이뤄집니다."

'위대한 국민' 3가지 덕목

①중생심을 개혁하세요

②참회정신을 가지세요

③양심에 떳떳하게 하세요

스님은 '나'라는 집착을 버리고 선업을 쌓다보면 저절로 복과 지혜가 생긴다고 누차 강조하셨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조계종단의 수행자들에게 열심히 정진할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조계종단은 수행종단입니다. 그러므로 수행이 모든 것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수행자는 어느 곳에 있던지 본분을 떠나면 안 됩니다. 서산스님은 금강산에서 잠을 이기기 위해 송곳을 앞에 두고 수행하였으며, 고봉스님은 정신을 차리기 위해 등에 돌을 짊어지고 수행하셨어요. 수행자는 항상 복전이 돼야 합니다. 밥먹는 것도 성불하기 위함이요, 몸을 유지하는 것도 깨달음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옛날 스님들의 생활을 항상 돌이켜 근검절약하며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행자에게 큰절 주지소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와 명예를 얻는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진정한 수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부질없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무소유의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해요. 혼자 살더라도 항상 대중이 함께 있다는 생각으로 승려의 위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명심하세요."

도선사에서 내려오는 길에 넘실대는 신록은 유난히 푸른빛을 발하고 있었다. 참회기도를 위해 끊임없이 산을 오르는 불자들의 눈빛처럼.

글=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혜정스님은?

도선사 선원 선덕인 혜정스님(71세)은 항상 수행자들에게 시은은덕과 근검절약을 강조한다. 스님은 그 흔한 자동차도 없다. 가끔 서울 혜화동 가볼릭대 강의 등 시내에 볼일이라도 있으면 젊은이들도 힘들어하는 왕복 4시간동안 산길을 걷고, 항상 버스와 전철만 타고 다닌다. 불자들의 보시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면 안된다는 스님은 아무리 바빠도 밖에서 공양하는 법이 없다.

하지만 스님은 주위 신도나 일반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절에 모인 보시금이 어찌 스님 것이냐'는 소신 때문.

스님이 상좌스님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은 '수행자의 위의' '겸손' '하심' '평등'이다. 못산다고 힘없다고 '불성' 이 똑같이 있는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18년간 삼각산을 등산하는 등산객들을 상대로 교리법회를 열고, 공양을 제공하면서도 이들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지만 문수사 불사가 시작되자 문수동굴에서 감로수 떠먹고, 법문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중에는 장관들도 있었다.

스님은 이것을 부처님의 공덕으로 생각한다.

스님은 1931년 충북에서 태어나 봉암사에서 청담스님 은사로 득도했다. 스님은 58년 해인사 강원 대교과 졸업하고, 문경 봉암사, 합천 해인사, 마산 성주사 선방 등 에서 수행을 했다. 특히 성주사에서는 성철스님 밑에서 참선정진 했다. 이후 조계종 총무원 교무부장을 거쳐 동화사 주지, 해인사주지 직무대행, 조계종 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스님은 현재 조계종 국제포교사, 청담문화재단 이사, 도선사 선원 선덕, 청담학원 이사, 삼각산 문수사 주지를 맡고 있다.

'수행자 위의·겸손·하심·평등' 강조…등산객 대상 법회도

그런데서도 '나는 이 서원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자기를 믿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단호한 믿음이 있어야 업에 이끌려가는 삶인 업생(業生)에서 벗어나 원력으로 지어가는 삶인 원생(願生)의 삶을 창출할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심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스님은 '육바라밀(六波羅密)'의 실천을 말씀하셨다.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의 육바라밀은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실천해야 할 생활실천 수행덕목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남에게 베푸는 것은 갚



정운스님의 스님이야기

형문스님

경허스님의 제자 3月가운데 수월스님(1855~1928)은 글을 모르는 문맹이었다. 얻어들은 풍월로 〈천수경〉을 외운 뒤 나무할 때나, 밥 먹을 때나, 방아 찧는 일을 할 때에도 천수다라니만을 지송하였다. 몇 년 뒤 천수다라니로 7일 용맹정진에 들었는데 7일째 되는 날 밤, 수월스님의 몸에서 빛이 얼마나 광열하게 내뿜었던지 아랫마을 사람들이 천장암에 불이 났다고 뛰어올라올 정도였다. 그는 천수다라니삼매를 증득(證得)한 뒤, 병색이 짙은 병자가 찾아와 스님을 친견하면 병이 나았다고 하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전한다. 수월은 간도 나자구에 화엄사란 작은 암자에 주석하였는데, 이곳은 마을과 마을을 잇는 고갯마루에 있었다. 스님이 아침 일찍 짚신을 수십켤레 삼아 집 앞 처마에 매달아 두면 지나가는 나그네가 짚신을 갈아 신고 갔다. 또한 스님은 주먹밥을 해서 집 앞 샘터에 놓아두면 지나가던 길손이 시장기를 달랬다고 한다.

스님은 '중생을 제도하고서도 제도하였다'는



상(相)에 머물지 않는 무주상(無住相)보시로 공(空)사상을 실천한 분이다. 이 어른처럼 참다운 보시행을 실천하는 스님이 있다. 형문스님이다.

강원 도반이지만 나는 오히려 도반보다는 선지식이란 이름이 걸맞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형문스님의 평소 마음씀은 늘 주위사람을 숙연케 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절이 몇 년간 불사중인데도 일년에 몇 번 큰 행사를 계기로 마을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한번은 마을의 보살 한 분이 병원비가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할 때 스님이 병원비를 내주고 손수 모시고 다녔다. 속인들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다. 도반들이 선방에서 정진하고 있으면 늘 대중공양을 한다. "자신은 절 수호하느라고 정진하러 가지 못하지만 참선하는 스님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불교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며 자신을 낮추어 말하곤 하는 스님이다.

학인 때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못하다. 스님은 1년에 몇 번씩 탁발을 해 고아원이나 무의탁 노인을 도왔다. 나는 스님의 갸륵한 마음에 감동받아 사교반 때에 함께 부산으로 탁발을 나갔다. 하루종일 탁발하고 저녁에 돌아오는데 너무 힘이 들어 택시를 타자고 제의했다. 형문스님은 "이 철부지 중아! 그래 중생들에게 베풀고자 탁발한 귀한 시주돈으로 택시를 타느냐"며 면박을 주었다. 스님은 학인 때부터 줄 끊어진 염주 꿰어주는 일을 좋아했다. '이것도 수행'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의식주는 인간에게 있어 기본적인 생활요건이다. 무소유(無所有)사상으로 부족한 것을 미덕으로 삼아 수행하는 것이 승려의 본분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지만 부끄럽다. 나 뿐만 아니라 몇몇 스님들이 귀족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시대적 현실에도 스님은 자신을 위해 갖춘 것은 제대로 없다. 승복 한 벌 변변찮은 것이 없고, 냉장고를 열어봐도 자신을 위해 놓아둔 음식이나 한약 하나 없다.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은 없으면서 남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보시한다.

두어 달 전에 스님 모친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제주도까지 문상갈 수 있는 상황이 못되어 걱정했는데 도반들이 참 많이 다녀갔단다. 49재도 결제전날이었는데 제주도까지 근 10명이 참석했다니 그 보살님은 딸 덕에 좋은 곳에 가셨을 테지만, 형문스님이 평소 심어놓은 공덕이 아닐까 생각된다.

박노자교수가 〈참여불교〉에 하화중생(下化衆生) 없는 한국 스님들에 대해 비판한 글을 쓴 것을 보았다. 어느 일면으론 긍정한다. 하지만 '박노자 교수가 수행자들의 진면목을 조금관 알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직접 중생을 제도하지는 아니해도 수행한 그 힘만으로도 무외(無畏)보시를 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학인때 탁발로 고아원 도와
利他앞장·천일기도 세차례

형문스님은 자신보다는 남의 안위를 생각하는 이타수행과 함께 기도정진에도 끈을 놓지 않는다. 스님네가 기도하는 걸 가지고 뭘 그리 수선떠나 하겠지만 형문스님의 정진은 고개를 절로 숙이게 할 정도로 지극하고 끊임이 없다.

운문사는 해마다 오백나한 100일기도를 올린다. 스님은 100일 기도를 자청했는데, 마침 나는 오백전 부전이었다. 사중에서 정해진 시간 이외는 시간가는 줄 모르고 기도를 하였고 백일기도를 회향할 무렵에는 거의 나한전에서 살다시피하며 기도를 했다. 스님은 강원 졸업후에도 천일기도를 3차례나 하였다. 근 10년 지장기도로 목소리는 거의 쉬어 있었고 감기에 걸려도 기도는 계속되었다. 한번은 기도 중 쓰러지기도 하였는데,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법당에 있었다. 나는 스님에게 '아무리 유심론(唯心論)을 주장하는 불가이지만, 몸은 정신을 담는 그릇이므로 몸을 혹사시키거나 육체를 외면한 채 정신만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다그치기도 하였다. 그래도 여전히 막무가내다. ▩ 서울 니련선하원 한주

모시는 말씀

귀의삼보하옵니다
선무(禪武)는 심신(心身)을 하나로 묶어
정신이 건전하고 신체 강건한 올바른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소납이 스승님으로부터 금강승선관무를
전수 받고, 그 제자들이 같이 모여
동고동락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자
수많은 세월동안 염원을 키워왔습니다.
이제 그 염원이 자그마한 결실을 맺어
사단법인으로 인가 되었고,
원주시 남녘 미륵산 남쪽 자락에
금강승선관무 중앙수련도장을
마련하여 '개원식' 및 '선관무정기수련'
'하계특별수련회'를 안내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공사다망하시더라도 개원식 및수련안내에
참석하시어 커다란 격려와 함께
조촐한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간절히 앙망합니다.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
이 사 장 이 원 욱 합 장

중앙수련원 개원식

▷ 일 시 : 2002년 7월 7일(일) 오전 11시
▷ 장 소 : 원주 금강승선관무 중앙수련원

2002년도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선무도) 정기수련과정(1개월) 안내

1. 과정소개
개인 및 단체가 원주 금강승선관무 수련원에서 1개월간의 입산 수련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는 과정입니다. 신행 단체, 직장단체, 각종 사회단체, 체육선수단, 외국인 참가단체등 각 특성에 따라 지도자와 사전협의 하여 일정표를 짜게 됩니다.

2. 참가회비
■ 개인 : 1개월 50만원 ■ 단체 (30인이상 기준) 회비조정

3. 기준일과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불교기초교리
5시	오체유법 및 참선	15시	선 · 관 · 무 수련
6시 30분	아침공양(발우)	17시 30분	저녁예불
7시 30분	운력	18시	저녁공양(발우)
9시	선 · 관 · 무 수련	19시	예습 및 복습, 독서
11시	참선	22시	취침
12시	정심공양(발우)		

4. 개 강 일 ■ 2002년 7월 25일 년중무휴
5. 참고사항
가. 매주 금요일 회주스님 면담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 입과 후 개인외출, 술 담배 등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다. 규칙을 어길 경우 일정제재나 퇴소조치됩니다. 라. 수련회 참가자는 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6. 접 수 처 ■ 전화 : 033)764-6362, 011-722-4779, 02)803-4779, 02)598-6771
■ 팩스 : 02)891-0770

2002년도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선무도) 하계 특별수련회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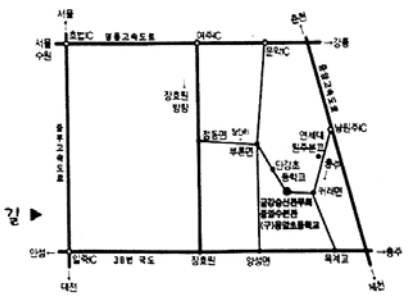
1. 일정 및 내용

기간(3박4일)		내 용
1차	7월 25일 (목요일) ~ 7월28일 (일요일)	禪 · 觀 · 武 수련, · 묵언(참선), 발우공양, 사찰예절, 전통문화강습, 예불, 108배, 운력
2차	7월 30일 (화요일) ~ 8월 2일 (금요일)	
3차	8월 6일 (화요일) ~ 8월 9일 (금요일)	
4차	8월 13일 (화요일) ~ 8월16일 (금요일)	
5차	8월 20일 (화요일) ~ 8월23일 (금요일)	

※초 · 중 · 고생 수련회는 다소 다른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2. 준 비 물 ■ 필기구, 세면도구, 우산, 운동화, 도복(별도)
3. 장 소 ■ 강원도 원주 금강승선관무 수련원
4. 신청방법 ■ 전화 : 033)764-6362, 011-722-4779, 02)803-4779, 02)598-6771 ■ 팩스 : 02)891-0770
5. 신청기간 : 2002년 6월 ~ 각 차수 2주전까지
6. 수련회비 : 6만원(1인)
7. 입 금 처 :
국민은행
812-24-0442-619
예금주 - 이동규

찾아오시는 길 ▶



사단법인 금강승선관무 총본회
·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옹암리 (구)옹암초등학교 우 220-852
· 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 983-1 거양 B/D 4층 우 137-849